**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 3A – 마태복음 5:1-16: 산상수훈 I: 서론과 행복**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산상수훈과 팔복에 대한 소개 강의인 3A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업용 보충 자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이 강의에 대한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서론. 우리는 산상수훈을 두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역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별개의 설교로 나타나지 않으며, 누가복음에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공관복음서들 간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가 전승, 문서 자료, 그리고 자신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이 설교를 창작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역사적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이 설교는 전적으로 마태에게서 나온 것이지,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견해는 복음서들을 신학적 이유로 조작된 비역사적인 허구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마태가 역사적 예수의 다양한 가르침을 수집하여 설교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원래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전해졌습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관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서사는 설교가 일어난 특정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통해 설교를 명백하게 괄호 안에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관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5장 1절과 2절, 그리고 7장 28절부터 8장 1절까지의 역사적 표식들을 무시하거나 허구로 간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점은 마태가 예수가 실제로 한 역사적 설교의 요지, 즉 횡좌표(abscissa novox), 즉 예수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설교에 대한 메모도 없고, 오디오 테이프도 없으며, 영상으로도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믿을 만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복음을 요약하고 그 요점을 알려줍니다.

횡축(abscissa novox)은 라틴어로, 이 설교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는 마태가 편집했으며, 현재의 문학적 형태는 마태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견해는 마태가 정확하고 완전한, 단어 하나하나, 즉 abscissima verba, 즉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그대로 옮겨 적은 속기 필사본이나 오디오 테이프인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도 이 두 가지 견해를 지지하지만, 복음서의 장르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역사적으로 전승되었다는 점에서 세 번째 견해가 훨씬 더 선호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정한 보고는 반드시 단어 하나하나까지 필사할 필요는 없으며, 애초에 어떻게 그런 필사본을 편찬할 수 있었는지, 더 나아가 9장 9절에 따르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마태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하게 요약한 내용, 즉 편집자의 흔적이 있는 기록을 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설교의 특정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다른 문맥에도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회 사역에서 핵심 주제를 반복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설교의 문학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된 13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자료 12페이지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를 다룬 후, 마태는 복음서의 핵심을 다섯 개의 담화와 서사적 소재로 전개합니다. 첫 번째는 3장부터 7장까지, 두 번째는 8장부터 10장까지, 세 번째는 11장부터 13장까지, 네 번째는 14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19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는 26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선교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다섯 부분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번갈아 강조하며, 각 부분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셨을 때 나타난 핵심 구절, 즉 각 설교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이미 더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설교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윤리적 가르침으로 보아야 하며, 말씀과 행위의 복합체를 제시하는 4장 23절의 요약된 말씀을 발전시켜 보여줍니다.

따라서 4장 23절과 9장 35절의 유사한 요약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행하심에 대한 틀, 즉 책받침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5장부터 7장까지, 기적은 8장과 9장에 나타납니다. 말씀과 행하심 모두 하늘나라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7장 28-29절, 행하심은 9장 6-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간략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13페이지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앉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설교 서두의 이러한 서사 구조는 설교 말미의 서사 구조로 보완되는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군중이 놀라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의 성품,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의 특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 본문은 5장 17절에서 시작하여 7장 12절에서 끝납니다. 7장 12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언급하며 또 다른 인클루시오(inclusio), 즉 책받침(bookends)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5장 17-20절에서 자신과 율법의 관계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5장 21-48절에서 여섯 가지 구체적인 대조를 통해 율법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6장 1-18절에서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와 진정한 종교적 행위, 6장 19-34절에서 물질주의와 근심, 7장 1-6절에서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7장 7-11절에서 기도를 다룹니다. 7장 12절의 마지막 요약은 5장 17절에서 시작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주제를 완성합니다. 설교의 결론은 7장 13-27절인데, 여기서 세 가지 대조가 매우 생생하게 표현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쁜 열매, 거짓 선지자, 나쁜 나무를 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합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주요 해석적 접근. 워런 키신저가 1975년에 출판한 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설교에 대한 해석적 접근은 분명히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그중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세대주의 해석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설교를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은혜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대 율법으로 간주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시기, 미래의 환난, 또는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고 잘못 가정하는 것입니다.

루터교 해석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설교를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여기지만, 그 높은 법적 기준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슈바이처, 즉 저명한 의사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 설교를 마태가 예수 재림 사이에 구상했던, 아마도 짧은 기간 동안의 윤리로 여겼습니다. 다양한 교파와 종말론적 관점을 가진 다른 해석자들도 이 설교를 오늘날의 윤리로 받아들이지만, 이 설교가 단순한 개인적 윤리인지, 아니면 정치적 과정을 통해 실행되어야 할 의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은 이 설교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윤리를 분명히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오늘날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3:2, 4:17)은 하나님의 구원 통치, 곧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 유대인 신자로서, 그들은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육체적 필요와 물질적 소유를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기도 또한 우선순위였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부주의하게 듣는 사람이 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열매 없는 나무를 피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경고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러한 기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6장 10절). 이 말씀은 5장부터 7장에 걸쳐 나오는 산상수훈의 서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인 팔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팔복의 문학적 구조입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총 아홉 가지의 팔복이 있는데, 5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아홉 번째 팔복은 실제로 5장 10절에 나오는 여덟 번째 팔복의 확장된 형태입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을 비롯한 몇몇 해석가들은 1988년 마태복음서에서 세 가지 팔복씩 세 세트로 구성된 구조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아홉 가지 팔복 중 처음 여덟 가지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평행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가지씩 두 세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14페이지 유인물에서 제가 그려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네 가지 복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맺는 수직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네 가지 복은 제자들이 사람들과 맺는 수평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 두 관계는 모두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이야기 모두 제자들이 박해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4쪽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인 5장 3절과 5장 10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두 이야기 모두에서 "그들의 것이 하늘 나라이다"라는 결론에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5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다른 모든 복은 복의 후반부 내내 미래 동사를 사용합니다. 5장 4절과 5장 9절이, 5장 5절과 8절이, 그리고 5장 6절과 7절이 우리가 제시한 방식대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특히 그리스어에 어느 정도 능통하신 분들은 문법적 형태를 눈여겨보시면 이를 더욱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의 문학적 구조는 네 가지로 구성된 두 세트입니다. 이제 팔복의 의미로 넘어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이해되고 전파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가? 상호 필수 조건인가, 아니면 종말론적 축복인가? 팔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팔복이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 축복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윤리적인 입문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가 있습니다. 로버트 굴릭은 그의 산상수훈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자라면, 여기에 언급된 특성들을 계발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자라면, 이러한 특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은혜롭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임을 감사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특성들을 계발해야 합니다. 물론, 이 두 번째 관점은 옳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3:2, 4:17)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기뻐합니다. 이어서 팔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서 인정하시는 핵심적인 성품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은사들이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한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계발해야 합니다. 각 복에는 누가 축복받았는지에 대한 선언이 담겨 있으며, 그 선언은 그들이 왜 축복받았는지에 대한 약속으로 뒷받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기, 규칙 준수, 소유, 화려한 과시, 또는 지식을 반드시 지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질들은 각각 하나님과 관련된 자질과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자질, 네 가지씩 두 묶음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40절과 어떻게 유사한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정하고 죄를 애통해하며 겸손하게 영적 충만함을 추구함으로써 자신과 관계를 맺는 자들을 인정하십니다(마태복음 5:3-6).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자비롭고 순수하게 관계를 맺는 자들을 인정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의로운 행실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말입니다(마태복음 5:7-12). 처음에는 이 말이 피학적인 사람들에게만 어필하는 잔혹하고 가학적 농담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오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거짓된 낙관주의가 아닌 진정한 현실주의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궁극적인 위로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급진적인 영성은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여러 문화적 관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중 하나는 동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료들에게 박해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5:10-12, 7:13-14)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또 다른 잘못된 관점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율법 준수를 뛰어넘는 의로움만이 그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5:20).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가 풍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소유에 대한 집착이 그의 나라의 가치와 상반된다고 말씀하십니다(6:19-21, 33).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때때로 하나님의 인정과 연관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7:22-23). 문명 세계에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성직자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여 기독교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7:26). 따라서 팔복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왕국 통치의 성품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성품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특성들을 계발하여 실제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보다 교만, 자비보다 공격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스토트가 그의 저서 『기독교 반문화』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기독교 반문화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이러한 반문화적 증거를 유지하면서, 팔복의 성품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던 스승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11:29 참조). 예수님은 애통하셨습니다(26:36-46). 예수님만이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3:15, 27:4, 19).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시며 분명히 자비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9:27, 15:22, 17:15, 20:30-31).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억압받고 박해받으신 분의 전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팔복의 반문화적 은혜를 함양할 때,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스승이시며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11-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해 보면 구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 5장 11절과 12절은 5장 10절에 나오는 박해에 대한 팔복의 함의를 확장하는 팔복입니다. 이 확장의 네 가지 측면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2인칭으로 바뀌면서 복은 더욱 개인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더 이상 "행복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너희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둘째, 박해 중에도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셋째, 복은 박해의 이유와 박해받은 다른 사람들의 이유를 언급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워집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은 약속된 상급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인 5장 13-16절은 압제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간증은 13절에서는 소금으로, 14-16절에서는 빛으로 비유됩니다. 빛의 은유는 산꼭대기에 우뚝 솟은 도시(5:14 )와 바구니 아래가 아닌 높은 등잔대 위에 놓인 등불(5:15)로 더욱 묘사됩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제자들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5:16). 이 짧은 구절의 맥락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5:3-6)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5:7-10)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5:11-16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세상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는 제자도가 단지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사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잠재울 것입니다. 첫째, 5장 11-12절에서 예수님은 5장 10절에 언급된 박해에 대한 복의 의미를 확장하시며, 제자들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모욕과 비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선지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큰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종종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둘째, 5장 13-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향력에 대해 두 가지 생생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5:13)은 소금이고, 5:14-16은 빛입니다.

소금처럼, 그들은 짠맛을 간직할 때에만 사회를 정화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짠맛은 우리가 이미 논의한 행복의 원리들을 함양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빛처럼, 그들의 선행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뚜렷하게 드러내기만 한다면 아버지께 찬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 21-4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신 것이 제자들의 윤리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의 유형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5장 21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야 한다면, 그 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의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5장 21-48절에는, 그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진정으로 드러나게 할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억압적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5장 13-16절의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증거하는 것의 두 가지 측면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제자들은 세상에 맛을 더하고, 정화하고, 보존하기 위해 세상과 어울려야 합니다. 하지만 등불과 같은 제자들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 맛은 소금통에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감수해야 할 몇 가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개혁파 기독교인이고, 저는 침례교인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제게 개혁파 신자들이 소금 비유에 더 잘 맞고 침례교 신자들이 빛 비유에 더 잘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개혁파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소금처럼 다가가 문화를 변화시키려 하는 반면, 침례교인들은 분리주의자로서 어딘가 언덕 위에 따로 세워진 빛이 되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두 가지 이미지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부 근본주의자들이나 침례교인들이 때때로 빛처럼 구별되려고 애쓰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음식에 스며드는 소금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16절의 용어는 마태가 교회의 보편적 사명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5장 3-10절의 팔복에 묘사된 종말론적 축복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할 은혜로운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16-18절)는 하나님 나라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입니다.

온 땅(6:10, 9:6, 11:25, 16:19, 18:18-19, 28:18 비교)은 소금으로 소금을 뿌려야 하고, 온 세상(13:38, 24:14, 26:13 비교)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어딘가 구석에 숨어 있는 작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분명 이 구절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고립주의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순수성이나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진지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금욕주의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종종 평판이 나쁜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9:10). 그분은 잔치를 벌이고 술을 드셨습니다(11:19).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분의 짠맛을 잃지 않으셨고, 그분의 빛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위험에 대한 해답은 고립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이며, 이는 개인의 회심과 문화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보다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변명할 수 없이 훼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무를 실제로 두 가지로 규정하신다는 사실에 도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마치 우리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 처음 네 가지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나머지 네 가지 복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동료 신자들의 지지를 받을 때, 그곳에 있는 고상한 목표들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태도와 특성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좋은 간증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간증이 되는 것에 대한 최신 유행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 묘사된 그런 사람이라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문화에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의 메시지를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참하여 소금과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